

세계 속의 한국수학

수원대학교 수학과 이상욱
swree@suwon.ac.kr

수원대학교 수학과 교영미
ymkoh@suwon.ac.kr

수학사를 보는 눈을 뜨게 해주신 홍성사 교수님과 홍영희 교수님께
본 논문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바칩니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한국수학의 존재를 규명하기 위한 한국 전통수학사 연구의
현황과 필요성을 살펴본다. 특히 홍성사 교수님과 홍영희 교수님의 정성어리고 투철
한 조선 산학 연구에 경의를 표하며 두 분의 한국수학사 연구결과를 보전하고 확대
하며 강화할 수 있는 한국 전통수학사 연구의 활성화 방안을 살펴본다.

주제어 : 한국수학(Korean mathematics), 중국수학(Chinese mathematics), 일본수학
(Japanese mathematics), 와산(wasan, 和算)

1. 서론

역사는 존재의 증명이다. 한국수학의 존재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세계 역사 속의 한
국수학사의 존재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세계 속의 21세기의 한국의 존재는 매우 선명하다. 21세기의 한국수학의 존재도 또
한 매우 선명하다. 한국의 국제수학연맹에서의 회원국 등급의 상향조정과 대한수학회
(KMS)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SCIE 등재가 21세기 한국수학의 면모를 보여주며,
2012년의 ICME와 HPM의 개최와 연이은 2014년의 ICM의 개최가 한국수학의 위상
을 보여준다.

그러나 21세기의 한국수학에 비하여 20세기 전반 이전의 한국수학의 존재를 찾아보
기는 쉽지 않다.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에 중국수학(Chinese mathematics)과 일
본수학(Japanese mathematics)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 반면, 한국수학(Korean
mathematics)은 존재하지 않는다. 수학사와 관련한 학술지 Historia Mathematica에도
한국수학은 없다. 한국이 ‘은자의 나라’로 불리기는 했지만 온 세계가 하나가 된 21세

기에 한국수학사가 세계에 제대로 소개되어 있지 않음은 불명예스러운 일이며, 국가에 손실을 일으키는 일이기도 하다.¹⁾

역사의 정당성(진실성)을 고려했을 때, 한국수학사의 내용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10]). 하지만 그 전에 불완전한 형태로라도 세계 수학사 속에서 한국수학의 존재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한국수학사에 생명을 불어 넣는 일이 한국수학사학회의 커다란 임무이다.

2. 세계 속의 한국수학

본 절에서는 역사의 존재성과 주체성 및 정당성의 관점에서 역사의 의미를 살펴보고, 세계 속의 한국수학을 조명하기 위한 한국수학사의 존재를 살펴본다.

2.1 역사의 의미

역사는 존재의 증명이다. 무엇인가의 역사가 존재함은 그 무엇의 뿌리(근원)가 있음을 의미하며 그 무엇의 면면히 이어온 삶의 존재를 의미한다. 역사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역사 자체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²⁾ 역사는 살아남은 자들에 의한 그들을 위한 그들의 이야기³⁾라는 말이 있듯이, 역사적 흔적(사료)의 존재와 상관없이 과거를 살아낸 누구나 역사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⁴⁾ 하지만 그러한 역사를 밝히는 것은 역사 주체의 또 다른 노력을 요구한다. 우리는 우리 삶의 존재 증명으로서 우리의 역사를 밝혀내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역사의 존재가 곧 역사 주체의 삶의 존재에 대한 증명이기에, 역사의 주체 스스로가 역사를 기술할 수 있어야 역사의 주체성이 살아난다. 이한우([5])는 역사의식을 현재의 자신이 과거의 어떤 역사적 맥락 속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자세로 정의한다. 그는 조선 사람의 강한 ‘역사의식’을 오늘날의 한국인보다 뛰어난 점으로 들며 조선 사람들이 벌였던 역사 기록의 주도권 장악을 위한 투쟁의 이유를 설명한다. 그것을 바로 역사의 주체성의 확립을 위한 노력으로 보는 것이다.

역사는 만들어진다는 주장도 많다.⁵⁾ 「예수는 신화다」의 저자 프리크(Timothy

1) 역사가 정립되지 않아 국가의 손실을 야기한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 영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소유권의 억지 주장과 중국의 동북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 등을 들 수 있다.

2) AEEA : The Absence of the Evidences is NOT the Evidence of the Absence. 2009년 5월 9일, 한국수학사학회 콜로кви움에서 홍성사 교수님의 孫子算經 강연 중에서.

3) History must be written of, by and for the survivors. - Anonymous

4) We cannot escape history. 1862년 12월 1일, 링컨(Abraham Lincoln)의 의회 연설 중에서.

5) There is no history, only fictions of varying degrees of plausibility. - Voltaire
History consists of a series of accumulated imaginative inventions. - Voltaire

Freke)와 갠디(Peter Gandy)는 ‘역사를 쓰는 자는 승리자이다. 그들은 제멋대로 쓴다.’는 일레인 페이절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역사는 철저히 승리자에 의해 쓰여진다. 역사는 단순히 기술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강조한다([11]).

우리는 역사 속에서 정복자들이 자신의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전의 문명을 말살했던 사례를 알고 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문서가 폐기되었던 일과 중국의 진시황에 의한 분서갱유가 그러한 예가 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일제 통치 하에서 우리나라의 문명과 문화가 말살되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한우([5])는 역사를 당대 세력들의 투쟁 기록이며 동시에 당대 세력들의 과거에 대한 기록 투쟁으로 설명하면서 권력투쟁이나 역사투쟁의 승리 못지않게 역사의 정당성(정통성)의 확보가 필수임을 망각해서도 안 됨을 강조한다. 정당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승리는 무상(無常)할 뿐이며 역사의 평가 척도가 정당성이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역사는 의견이 아니라 사료에 근거한 기술이어야 한다.⁶⁾ 링컨은 진실이 아닌 역사는 결코 역사가 될 수 없다⁷⁾고 강조한다. 홍성사([10])도 역사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사료에 근거한 사실로서의 수학사의 연구를 강조한다.

한국수학의 존재는 세계 역사 속의 한국수학사의 존재로서 증명할 수 있는데, 21세기에 보여준 한국인에 의한 수학적 성과가 선명함에 비하여 한국수학사의 존재를 세계 역사 속에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Next Wave Convention⁸⁾에서 한 강연자는 미국 드라마 「Heroes」의 한 장면을 보여주며 설교보다 영화가 더 훌륭한 선교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며, 때로는 정확한 사실보다 상대의 마음에 흡족한 대화가 감동을 이끈다는 사실에 주목하기를 요구한다. 이 말은 때로는 사실보다 이야기(story)가 힘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기에 한국수학사의 바른 내용 연구도 중요([10])하지만, 먼저 불완전한 형태로라도 세계 역사 또는 수학사 속에서 한국수학이 이야기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수학사의 존재를 밝혀 세계에 알리는 것이다. 이러한 일이 ‘한국수학사학회’에게 하나의 커다란 임무를 제시한다.

2.2 세계 속의 한국수학

21세기의 한국은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 있다고 보여진다. 한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 위협에도 불구하고 각종 세계 정상회의를 치르면서 정치적 입지를 확립하고 있고,

God cannot alter the past; historians can. - Samuel Butler

History is the invention of historians. - Attributed to Napoleon

6) History must stand on documents, not on opinions.-Lord Acton. 홍성사.

7) History is not history unless it is the truth.-Lincoln (1856, W.H. Herndon에게 보낸 편지에서)

8) 2009년 6월 1일, CGN TV에서 상연된 프로그램.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배출하였으며, 21세기에 들어서며 시작된 세계 경제 불황 속에서도 곳곳이 경제 성장을 이루며, OECD 의장국(2009년도)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지난 60년간의 한국의 경제적 도약은 세계 각국의 경제 성장의 모델로까지 인식되고 있으며, 삼성, LG, 현대 등의 한국 기업은 세계 기업으로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 체육 분야 등에서도 한국의 이미지를 세계 속에 확고하게 심고 있다.

이렇듯이 21세기의 한국의 존재는 매우 선명하다. 하지만 세계 속의 한국의 존재가 그렇게 뚜렷한 것만은 아니다. 2009년 7월 3일, 국제교류재단(이사장 임성준)의 주최로 열린 ‘해외 한국학 발전 계획 세미나’에서 김혁래([2])는 실제 미국 명문대(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의 한국학 교수와 강좌의 수가 중국학과 일본학에 비하여 절대적인 열세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미국 학계에서 중국학과 일본학에 비교하여 한국학의 수준이 매우 낮음을 지적하였다.

	한국학	중국학	일본학
교수 수 (명)	8	50	44
강좌 수 (개)	60	195	125

<미국 명문대에서의 한국학, 중국학, 일본학의 비교>[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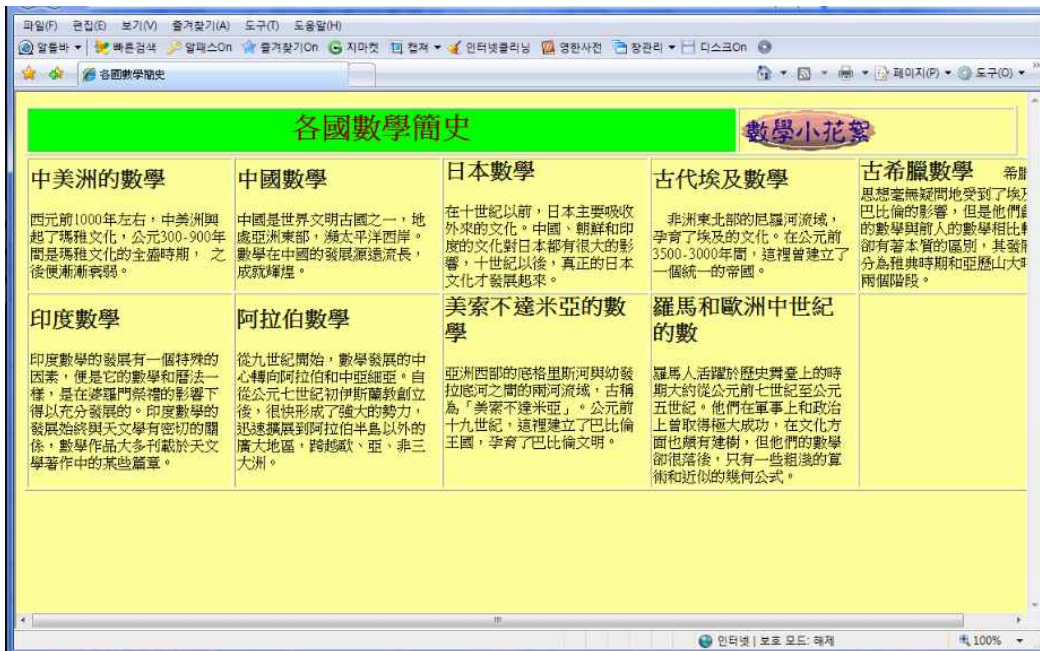
21세기의 한국수학의 존재는 21세기 한국의 존재만큼이나 선명함에도 불구하고, 한국학의 일부분인 우리 전통수학도 한국학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은 2007년에 국제수학연맹⁹⁾의 회원국 등급이 그룹 II에서 그룹 IV로 상향조정되었고, 2003년에 대한수학회지(Journal of KMS), 2008년에 대한수학회보(Bulletin of KMS)가 SCIE에 등재되었으며, 2000년에 IMO를 개최하였고, 2012년에는 ICME와 HPM을 개최할 계획이며, ICM의 2014년 개최도 이미 유치가 확정되었다.¹⁰⁾ 하지만 20세기 전반 이전의 한국수학은 중국수학과 일본수학에 비하여 그 존재가 매우 미미하다. 실제로 세계 속에서 한국수학사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인터넷에서 같은 동양수학에 속한 중국수학과 일본수학에 관해서는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반면 한국수학에 관한 자료는 얻을 것이 별로 없다. 실제로 세계수학사를

9) 국제수학연맹(IMU), <http://www.mathunion.org/members/countries/list/sorted-by-groups/>

10) IMO : International Mathematical Olympiad
 ICME : International Congress on Mathematical Education
 HPM : History and Pedagogy of Mathematics
 ICM : International Congress of Mathematicians

소개한 중국의 인터넷 사이트에 중국수학과 일본수학은 포함되어 있으나 한국수학은 존재하지 않는다.



Clark 대학교의 웹사이트 History of Mathematics[14]는 바빌로니아, 이집트, 중국, 그리스, 인디아, 아랍, 일본, 유럽 등의 지역의 수학사를 소개하고, 스코틀랜드의 University of St. Andrews 의 The MacTutor History of Mathematics archive([15])도 바빌로니아, 이집트, 그리스, 아랍, 중국, 인도, 마야, 미국,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수학을 소개하지만, 여기에서도 한국수학은 찾아보기 힘들다. 심지어 한국학중앙연구소([13])에서도 한국수학사에 관한 사료를 찾아볼 수 없다.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11])에서도 상황은 같다. 중국수학과 일본수학은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 반면, 한국수학에 관련된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다. 2009년 6월 26일 현재, 위키피디아에서 Chinese mathematics 를 검색하면 시대별 중국수학사의 소개를 포함한 12개 항목의 설명이 제시되어 있고, 26개의 인용구에 대한 설명과 다양한 외부 사이트와의 연결을 제공한다. Japanese mathematics 를 검색하면 15명의 와산 수학자에 대한 연결과 일본인 저자의 다양한 책과 논문을 참고문헌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Korean mathematics 의 검색 결과는 ‘자료 없음’이 나올 뿐이다.

11) Wikipedia, 인터넷 백과사전, <http://www.wikipedia.org>.

Chinese mathematics	Japanese mathematics	Korean mathematics
Early Chinese math, Qin math, Han math, Tan math, Song & Yuan math ... Citation 26 개 External Links Overview of Chinese mathematics Chinese mathematics through the Han Dynasty See also Chinese Astronomy History of mathematics Indian mathematics Islamic mathematics Japanese mathematics	Important wasan mathematicians 15명 References 10개 See also Idai, Sangaku, Soroba, Enri 등 4개 External links East Asia Institute Sangaku	No article title matches

<2009년 6월 26일 현재, 위키피디아의 검색 결과>

세계 수학사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는 학술지 Historia Mathematica¹²⁾에서의 검색 결과도 유사하다. 2009년 6월 26일 현재, Historia Mathematica에서 Chinese mathematics, Japanese mathematics, Korean mathematics를 검색하면 중국 249개, 일본 114개, 한국 11개의 관련 기사(article)가 검색된다. 이들 기사들 중에 실질적인 수학사 논문은 중국이 40~50개, 일본이 4~8개 정도인데 반해, 한국수학사와 관련된 논문은 발견할 수 없다.

Chinese mathematics	Japanese mathematics	Korean mathematics
249 articles found 실제 중국수학사 관련 논문 수 : 40~50 개 정도	114 articles found 실제 일본수학사 관련 논문 수 : 4~8 개 정도	11 articles found 실제 한국수학사 관련 논문 수 : 0 개

<2009년 6월 26일 현재, 위키피디아의 검색 결과>

특별히 Historia Mathematica에 중국수학과 일본수학을 개괄적으로 소개한 논문

- Frank J. Swetz, Ang Tian Se, A brief chronological and bibliographical guide to the history of Chinese mathematics, Historia Mathematica, Vol. 11, issue 1 (Feb. 1984), 39-56
- Jean-Claude Martzloff, A survey of Japanese publications on the history of Japanese

12) 1974년부터 발간된 수학사 관련 학술지. Elsevier에서 출판.

traditional mathematics (Wasan) from the last 30 years, *Historia Mathematica* Vol. 17, issue 4 (Nov. 1990), 366-373

이 들어 있는 반면, 한국수학을 소개한 논문은 없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세계 수학사 속에서 한국수학의 존재는 거의 전무하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 전통수학사의 연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수 년전 한국수학사학회의 노력으로 목사집산법, 구수략, 구일집, 산학입문, 산학본원, 산술관견, 차근방몽구, 익산, 측량도해, 유씨구고술요도해 등의 산서들이 번역되어 있으며, 홍성사 교수와 홍영희 교수의 10여 년에 걸친 조선 산학에 대한 값진 연구 결과들이 한국수학사학회지를 통하여 발표, 축적되어 있다([1]). 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수학사의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학자들도 배출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대만사범대학 수학과 洪萬生(Horng, Wann-Sheng) 교수와 그의 학생들이 한국수학사를 연구하고 있다([3], [4], [7], [8], [9]). 특히 英家銘은 조선산학가 남병길을 주로 연구하며([3], [4]), 黃清揚 또한 남병길의 구장술해를 연구하고 있다([7]). 洪萬生 교수의 12명의 석사학생(吳秉鴻, 李建宗, 周宗奎, 林肯輝, 洪宜亭, 孫梅茵, 張復凱, 陳冠良, 葉吉海, 蕭文俊, 謝三寶, 謝佩珍)들도 東算史(한국수학사)에 관련된 석사 논문을 썼다([9])고 전한다. 또 陳敏皓의 서평([6])에 따르면 當數學遇見文化가 17세기(조선 후기)의 한국수학을 다루고 있다고 소개한다.

하지만 외국학자들에 의한 한국수학사의 연구에 관하여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洪萬生([8])은 한국수학사의 자체적 연구 가치를 피력하면서, 2000년 현재까지도 한국 학자에 의한 연구가 별로 없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한국수학사의 연구가 필요함을 피력하면서도 중국수학이 한국으로 전파되었음을 강조하는 한편, 한국수학의 독창성에 대한 언급보다는 한국수학의 중국수학에 대한 종속성을 강조한다. 한국수학사의 연구에 대한 세계의 인식이 외국학자의 연구 결과에 의해 선점된다면 역사의 주체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한국 전통수학사의 국제적 연구와 발표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국내에서의 한국수학사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확산도 필요하다. 실제로 한국수학사의 연구는 홍성사 교수와 홍영희 교수를 중심으로 한 소수의 학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보다 많은 연구 인력의 양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중국은 자국 역사의 연구를 위한 지원이 상당한데, 그 중의 한 예가 중국철학서전자화계획¹³⁾이다. 이 계획은 국가의 지원으로 2006년부터 중국 고전에 해당하는 많은 철학서를 포함하여 海島算經, 九章算術, 孫子算經, 周髀算經 등과 같은 산서의 원문을 제공한다. 또한 원문의 해석을 위하여 사용된 각각의 한자들의 영문풀

13)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http://chinese.dsturgeon.net/index_gb.html

이도 제공한다.

일본의 일본수학(和算, wasan)의 홍보 노력도 주목해 볼 만하다. Okumura 는 그의 논문 Japanese Mathematics¹⁴⁾([12]) 에서 일본이 와산을 지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음을 설명하고 있다. 우선 와산 관련 서적들은 한자로 쓰여 있어 현재의 일본인이 읽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현대어로 번역을 하였고, 와산 서적들을 일반 대중, 심지어는 수학교사조차도 본 적이 없다고 하기에 1989년과 1994년에 이들을 일어 책과 영어 책, 그리고 재미있는 책으로 제작하고 그 결과를 CD-ROM 으로 제작하여 일본 전국으로 배포하였다고 한다. 특히 컴퓨터의 고어에 대한 처리 방법의 변화에 따라 기록이 손실되지 않도록 자료를 모두 그림파일형식(jpg)으로 처리하는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또한 와산사이트([17])와 수학박물관([16])은 와산 여행(A Journey to Wasan)을 포함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여 일본수학(와산)을 잘 소개하고 있다. 또한 이곳에 연결된 사이트에는 예로부터 전해진 수학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그림과 서적 등을 포함한 유물의 사진을 찍어 일본수학의 존재를 강조한다.

3. 한국수학사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류의 역사에서 수학사는 지식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 한국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며 우수한 문화를 지녔음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가이다([1]). 또한 21세기의 한국수학의 수준과 위상도 국제적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수학사의 국제적 인지도는 매우 낮다. 동양수학사로서 인도수학사, 중국수학사, 일본수학사 등이 많은 자료에서 언급되고 있는 반면, 한국수학사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렇다고 한국수학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홍성사 교수와 홍영희 교수의 수준 높은 한국수학사의 연구([1])와 10종에 이르는 조선과 중국의 산서들이 이미 번역되어 나와 있다. 다만 이러한 결과들이 외국에 거의 소개되어 있지 않을 뿐이다. 한국수학 특히 조선수학이 중국수학과 다른 자체적인 독창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洪萬生을 비롯한 대만 학자들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이 한국수학의 독창성과 가치를 인정한다는 사실에 안주하기보다, 외국학자들이 한국수학사를 본격적으로 연구하여 우리보다 먼저 국제 학술지에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한국수학사가 외국인에 의해 먼저 연구될 경우, 한국수학사에 대한 주체성과 정통성을 잃을 개연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14) NSF의 지원을 받는 National STEM Digital Library(www.nsdll.org) 작업의 일환으로 2004년에 디지털 자료로 등록됨.

국내 한국수학사의 연구는 한국수학사학회에서 주로 연구, 발표되고 있다. 한국수학사의 연구 논문도 대부분 한국수학사학회지를 통하여 발표된다. 한국 수학회계는 2012년의 ICME와 HPM의 개최와 2014년의 ICM의 개최를 큰 경사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국제 학술대회의 연이은 개최는 한국 전통수학을 국제 무대에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따라서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한국수학사학회가 우리의 한국 전통 수학사의 연구를 위해 더욱 분발해야 할 시기임을 뜻한다.

우선 수학자들이 한국수학사의 연구를 시작하기 쉬운 상황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국수학사와 관련된 사료의 입수가 쉬워야 할 것이며, 한자로 쓰여진 사료들을 읽을 수 있도록 한자 교육의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수학사학회는 연구회를 결성하고 주기적인 공동 연구를 실시하면서 연구 결과의 국내 및 국제 확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고,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의 논문 발표로 이어져야 한다. 그리고 한국을 외국에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13])에서 발간하는 영문학술지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에도 한국수학사를 소개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홍성사 교수와 홍영희 교수의 한국수학사 연구의 성과를 정리하는 한편, 그들의 연구를 이어 받을 연구 인력의 양성과 연구능력의 확보가 우선일 것이다. 또한 한국수학사의 소개와 연구논문의 발표에 이어 세계 수학사학자와의 국제 교류를 확대하여 세계 수학사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확립하는 한편 국가의 문화적 위상 또한 확고히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감사의 글. 심사자들의 날카로우면서도 세심한 충고로 인하여 훨씬 나은 논문으로 모습을 갖추 수 있었습니다. 심사자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 문헌

1. 고영미, 이상욱, 조선 산학의 흐름, 본 한국수학사학회지.
2. 김혁래, 한국학 교수 8명, 일본학은 44명, 이한수 기자, 조선일보 A21 (2009.7.8.수).
3. 英家銘, 朝鮮數學家 南秉吉《九章術解》校勘理校勘 整理 與 綜合分析, 中華科學史學會學刊 第12期 (2008년 12월).
4. 英家銘, 朝鮮數學家 南秉吉 對 <角>의 概念 與 <相似形>의 理解.
5. 이한우 지음, 왜 조선은 정도전을 버렸는가, 21세기북스, 2009.
6. 陳敏皓, 評介 <當數學遇見文化> (洪萬生, 英家銘, 蘇意雯, 蘇惠玉, 楊瓊茹, 劉柏宏, 劉淑如, 當數學遇見文化, 三民書局, 2009, ISBN 978-957-14-5129-9).

7. 黃清揚, 南秉吉 《九章術解》卷七校勘, HPM通訊第六卷第二、三期合刊,
<http://math.ntnu.edu.tw/~horng/letter/vol6no23a.htm>.
8. 洪萬生(Horng, Wann-Sheng), *The History of Korean Mathematics in the Chosun period*, 2008 한국수학사학회 가을 학술대회(성균관대, 2008. 11. 15.) 발표 자료.
9. 洪萬生, 如何利用 HPM 來推動數學史之研究, 대만수학교육학회 발표자료 (2005.5.~2006(?)).
10. 홍성사, 조선 산학 관건, 대한수학회소식 117(1), 2008.01, 5-9.
11. Timothy Freke, Peter Gandy, 승영조 옮김, *예수는 神話다*(The Jesus Mysteries), 동아일보사, 2002, ISBN 89-7090-268-603230.
12. Hiroshi Okumura, *Japanese Mathematics, Symmetry: Culture and Science*, Vol. 12, Nos. 1-2 (2001), 79-86. (digitized version, 2004).
13. 한국학중앙연구소, <http://www.aks.ac.kr/aks/>.
14. History of Mathematics, Clark university,
<http://aleph0.clarku.edu/~djoyce/mathhist/earth.html>.
15. The MacTutor History of Mathematics archive, University of St Andrews, Scotland,
<http://www.gap-system.org/~history/>.
16. 일본 수학박물관, <http://mathmuse.sci.ibaraki.ac.jp/indexE.html>
17. Wasan(和算), <http://www.wasan.jp>, <http://www.wasan.jp/english/>.

Korean Mathematics in (the History of) the World

The University of Suwon **Ree, Sangwook**
The University of Suwon **Koh, Youngmee**

In this article, we look into the present status of Korean mathematics and stress the importance and the need of research on its history. Some researches on it have been done by Hong, though not known to the world. We search some of the ways of activating the research on Korean mathematics history and introducing it to the world.

Key Words : Korean mathematics, Chinese mathematics, Japanese mathematics.

ZDM Classification : A30

접수일 : 2009년 7월 15일 수정일 : 2009년 8월 19일 게재확정일 : 2009년 8월 20일